

교회음악 산책의 넷째 걸음

아베 마리아는 가톨릭교회에서도 전례(典禮) 중에는 별로 불리지 않습니다. 전례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예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공식 그레고리오성가책인 ‘로마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나타나 있듯이 성모축일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봉헌 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사 끝을 비롯한 모든 예식의 끝에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성음악 중에 ‘아베 마리아(Ave Maria)’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성음악이 하느님께 드리는 전례에 사용되는 음악인데, 아베 마리아는 비록 훌륭하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었던 마리아를 찬미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마리아는 라틴어로서, Ave는 “안녕하십니까?” 혹은 “문안드립니다”라는 뜻이고, Maria는 예수를 낳으신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직역한다면 “마리아님,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이 됩니다. 전체의 내용은 가톨릭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성모송이라는 기도문이며, 그 가운데서 전반부는 루가복음 1장 26~45절 사이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에 사는 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Ave Maria!”라고 인사하며 처녀로서 아기를 가져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전해주는 장면, 마리아가 당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세상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도 복되시다’고 탄성을 지른 내용, 그리고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을 그대로 편집한 것입니다. 후반부는 교회가 마리아의 전구(轉求)를 청하는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 전문(全文)을 라틴어와 우리말로 비교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s Jesus.*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Sancta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아멘.

이상의 번역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공식 기도문으로 번역된 것이기에 임의로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안 됩니다. 또 라틴어와 우리말의 어순(語順)이 달라서 끝의 두 줄은 당연히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당연히 그레고리오 성가 시대에 선율이 붙여졌습니다. 그 곡을 4선 악보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아베 마리아는 그 라틴어 문장의 아름다움과 마리아께 대한 초기 신자들의 애정 때문에 수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가사를 조금씩 변형시켜 작곡하기도 하고, 혹은 위에 제시된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을 살려서 다성음악 기법으로 작곡하기도 하였으니, 죠스깡(Josquin Desprez), 윌라르트(A. Willaert), 빅토리아(T. L. de Victoria)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모송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정선율 기법으로 작곡된 미사곡들도 여럿 볼 수 있는데 플라루(P. de La Rue), 모랄레스(C. Morales), 팔레스트리나(G. P. da Palestrina) 등의 작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 슈베르트(F. Schubert)의 아베마리아를 꼽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곡은 사실은 그 가사 내용이 성모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국 시인 스콧트(W. Scott)의 ‘호수 위의 미녀’라는 서사시의 6번째 ‘엘렌의 노래’ 중에 나오는, 엘렌이라는 소녀가 성모상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문을 가지고 작곡한 세속곡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바흐(J. S. Bach)의 피아노 평균율 제 1권에 나오는 C장조 전주곡(Praeludium)을 반주로 삼아 그 위에 구노(Ch. Gounod)가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 엮은 곡으로서 매우 신앙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최근에는 카치니의 곡이 크게 유행되었는데, 이런 독창곡들보다는 합창곡들이 더 많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가톨릭교회에서도 전례(典禮) 중에는 별로 불리지 않습니다. 전례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예배의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공식 그레고리오성가책인 ‘로마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나타나 있듯이 성모축일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봉헌 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사 끝을 비롯한 모든 예식의 끝에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베 마리아를 하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로서 부르며 혹은 들으며 마음을 평안히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Ave Mari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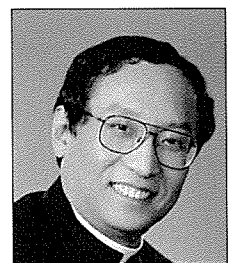
1. 

H -ve Ma-rí- a, * grá-ti- a pléna, Dóminus técum,

benedícta tu in mú-li- é-ribus, et benedíctus frúctus vén-

trís tú- i, Jésus. Sáncta Ma-rí- a, Máter Dé- i, óra pro

nó-bis pecca-tóribus, nunc et in hó-ra mórtis nóstrae. Amen.



백 남 용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